# 외래 정복자들도 감화시킨 佛法

얼마 전 알렉산더 대왕의 기원전 334년 인도원정을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보자니, 당시 그의 측근 참모들은 장기간의 정복전쟁과 끝없는 대량살육행위에 극도로 지치고 분개한 나머지 역모 쿠데타를 꾀했던 듯하다. 그 일촉즉발의 정황을 눈치 챈 그는 상당수의 병력을 점령지인 인도의 북서부와 외곽지역에 남겨둔 채 서둘러 철군한다. 그리고 현지에 잔류하게 된 지중해연안 출신의 점령군들은 여러 도시들을 건설, 현지인과 혼인 정착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헬레니즘 문명과 심오한 인도문명을 상호 교류시키는 가교 역할도 떠맡게 된다. 그때가 여래께서 사바세계에 다녀가신 후 200년 즈음으로, 당시 불교는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의 토착종교들 틈에 끼어 그다지 큰 영향권을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에 박트리아 왕조 등을 창건한 외래 정복자들은 현지 토착민들보다 오히려 더 불교에 심취, 마침내 간다라문화라는 역사적인 동서혼성문화를 창출해낸다.

곧이어 그들은 알렉산더 대제국의 심장부인 현 그리스, 이라크와 이란 등 페르시아지역, 터키와 발칸반도 등 지중해 연안, 현 리비아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일대, 심지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지까지 대대적인 국제전법을 펼쳐 지금껏 그 희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문화든 종교든 민족이든 그 앞에 '순수'라는 낱말을 덥석 갖다 붙이는 건 참으로 딱하고 아슬아슬한 일이다.

그런 전제하에, 순수할 겨를도, 순수해야 할 까닭도 없이 수시로 진화해온 한국불교의 발전사를 잠시 되짚어보자.

불교는 동양문화권으로 전파되며 기존의 사상과 문화를 융합하며 발전했다. 용과 관련된 신앙은 불교와 융합된 동양전통의 대표적 사례다. 사진은 우리나라 사찰(청원 안심사)에 그려진 운룡도.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오래전 우리 토착신앙과 외래종교문화가 곱게 접목이 되어 맺어진 열매다. 사실 불교는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중국적 버전이 농후했다. 즉, 중국의 제자백가를 비롯한 도교의 무위자연사상이 인도에서 도래한 불교철학의 연기론 등과 신축적으로 상호 보완되었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첫 번째 원융은 중국불교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우리 기존 토착무속신앙과 두 번째 혼융으로 이어지며, 다시 삼국통일시기에는 간다라예술로 표상되는 그리스 박트리아 형 불교와 세 번째 아우른다.

이어 고려 때는 막강한 몽골제국의 힘에 편승한 티베트 불교와 네 번째 혼융이 이뤄진다. 이런 개괄적 구분은 굳이 학술탐구가 아니라도 불교사에 관심이 있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속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란 말은 듣는 이에 따라 미묘한 화두거나 혹은 자못 낭만적 여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아무튼 석가세존 이후 28대 조사이던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떠나 중국불교의 초대조사가 된 것이 6세기며, 불교가 한반도에 완전히 정착한 것은 그보다 더 뒤의 일이다.

그런데 인도 통일의 영웅이자 불법전파의 대왕 아소카가 파견한 전법사절단은 지중해연안을 향해 서쪽으로 떠났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때보다 무려 800여 년이 앞선 기원전 2세기경의 일이다.

출처:종교적 진실, 알렉산더와 동방원정, 그리스 박트리아 왕조, BBC, 기타 / 편역:성휴 스님

## 티베트 시가테 노승 자살 논란

티베트의 제2도시인 시가테에서 작년 9~11월경부터 퍼진 두 노승의 자살 소문이 금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 내 인권문제와 맞물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각각 71세의 걀첸 체파와 양파로초는 중국이 폐위를 시킨 제11대 판첸라마의 열성 지지자였다. 현재까지 그들의 자살동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 국제사회의 의혹이 증폭, 급기야 중국정부는 1월 17일 최소한 사망사실만은 공식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출처:ABI

## 콜로라도 주 의회서 힌두 기도회

콜로라도 주 의회는 1월 29일 저명한 힌두교 성자인 라잔 제드가 2008년도 개회를 축복하는 힌두 기도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불교의 대표적 상징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는 1861년 주 의회 개회 이래 최초로 기독교 형식에서 풀려난 것이며 영어로 동시통역이 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등에서 비기독교 종교지도자들의 공식집전은 실시 중이나 이처럼 의회에서 축도를 하는 것은 종교적 기회균등의 새로운 시발이다. 출처:CSA

## 美 남부 불교단지 신축허가 청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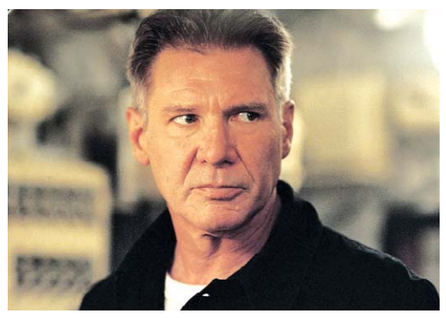
미국 메인 주의 벅스턴 사회기획위원회는 1월 22일 자연환경이 뛰어난 남부 외곽지역의 불교단지 신축허가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가졌다. 현지 주민들은 생필품 매장과 단독주택을 겸한 다용도 불교단지의 건설을 신청했던바, 이번 청문회는 향후 지역사회 내 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조율의 시도로 보여진다. 출처:IBC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 "오늘의 박수갈채도 내일엔 과거일뿐"

월드 스★타 불심 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❷



"인기란 덧없는 것이다. 오늘의 박수갈채가 내일엔 과거지사일 뿐이다." 누구든 잘 알면서도 곧장 받아들이긴 어려운 제행무상을 이처럼 쉽게 풀어 말한 해리슨 포드처사님은 19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백러시아의 유태계로 한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우를 했고, 아일랜드계인 아버지는 배우를 하다가 광고회사를 운영했다. 그 시절이 이미 60~70년이 지난 옛날임을 감안하건대, 그들은 아마도 진취성향이 다분했나보다. 그래저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자유분방한 기질과 끼를 한껏 물려받은 셈이다. 고교시절 내내

## 할리우드 구석구석 오가며 자아성찰
## '스타워즈' 출연 후 세계적 스타 도약

어눌하게 홀로 지내던 그는 리펀 대학에 들어간 후 본인의 말대로 여자 친구나 좀 사귀어 볼까하고 여학생 수강생들이 특히 많은 드라마 강의실을 들락거리다가 그마저 별 재미를 못보고 아예 학교를 그만뒀다.

스스로 '굼뜬 늦깎이'라 일컫는 그는 그 후 하찮은 단역에도 만족하며 할리우드의 구석구석을 바지런히 오갔다. 할리우드 불자들이 대개 한두 번은 겪었던 자아성찰의 만행 길을 더듬은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꾸준함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그는 1970년대 대 히트작이자 불교철학의 집대성이라 공인된 평가를 받는 영화 '스타워즈'에 출연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 작품의 불교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 미국의 수많은 개봉관들은 '극장 사찰(Theater Temple)'이라 부를 만치 대성황을 이루며 엄청난 흥행성공을 거뒀다.

조지 루커스 대법사님의 일생일대 걸작인 이 작품은 특히 미국은물론 세계적인 전법에 있어 가히 불교혁명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이 영화에서 한 솔로의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냄으로서 스타덤을 향한 가도에 성큼 들어섰다.

사춘기의 친구들 사이에 멋대가리 없는 머저리로 통하던 그가 장래에 가장 성공할 인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해리스 포드처사님은 앞서 꿰뚫어보듯 늘 이렇게 말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다음 기회를 향한 도약대로 활용,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전설적인 주인공이 됐다.

"대개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제대로 된 기회"라고 말한 그 자신의 예언이 또다시 절묘하게 적중한 것이다. 이후 줄줄이 이어진 '에어 포스 원' '의혹' 등 히트작으로 그는 할리우드 최고 명우로 명성을 굳힌 동시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 돈더미에 앉았다.

그는 이젠 더 이상 여학생들을 사귀어 볼까 하고 어슬렁거릴 필요도 없이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교 도반이자 공전의 히트작인 '이티'와 '쿤둔' 그리고 '검은 종마' 등의 대본작가로 유명한 멜리사 매디슨과 결혼했으나 20년 만에 헤어졌다. 세상에 그런 이혼남을 마다할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만, 그는 아직까진 추문이 없는 대스타 중 하나다. 성휴 스님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When he sleeps, he sleeps. When he eats, he eats."

—주무실 땐 오로지 주무시고, 공양 드실 땐 공양만 드시지

One disciple bragged about his master to the disciple of another master. "My big master is capable of all sorts of magical acts, like writing in the air with a brush, and having the characters appear on a piece of paper hundreds of feet away. And what can your small master do?"

"My small master as you put can also perform amazing feats," the other student grinned. "Ha, don't tell me! what?" He replied quietly "When he sleeps, he sleeps. When he eats, he eats."

한 학승이 다른 문하의 학승에게 자기 스승의 자랑을 늘어놨다. "우리 큰스님께선 온갖 요술 마술 비술이 끝내 주신다구. 붓으로 허공에 휙휙 글씨를 쓰셔서 수백 걸음 떨어진데 있는 종이 위에 샤악 나타나게도 하시지. 근데 니네 작은스님은 하실 수 있는 게 뭐야?"

그러자 다른 학승이 빙긋 웃었다. "자네가 말하는 우리 작은스님께서도 대단한 일들을 하셔." "흥, 설마! 그게 뭔데?"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 작은스님께선 주무실 땐 오로지 주무시고, 공양을 드실 땐 오로지 공양만 드시지."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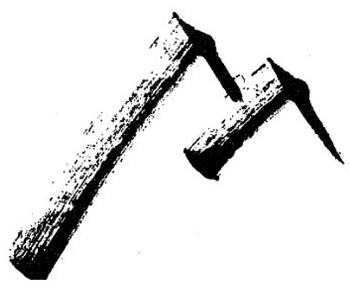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천도법회



www.begood05.com
(이산선원)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8시
부산 영도 중리 해변
010-4138-9705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처봉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